



■ 기아차 수출 1000만대 돌파

1975년 브리사 첫 수출후 36년만에 달성

광주공장 생산 스포티지·쏘울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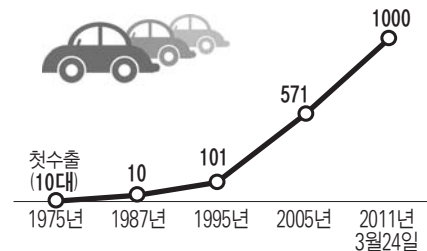
1975년 브리사 픽업 10대를 카타르행 배에 선적한 것을 시작으로 36년 만인 24일 기아자동차가 수출 1000만대 달성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24일 기아자동차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 평택항 수출 선적부두에서

'10,000,000' 번호판을 단 흰색 K5와 1000만호 모닝, 1000만호 스포티지R이 미국행 배에 선적됐다. 수출 1000만대를 달성한 순간이었다. <상업경기장의 370배 규모=기아차 수

출 성장세는 실로 괄목할 만하다. 수출 누계 100만대를 돌파한 것이 1995년이었으며, 200만대는 1999년, 500만대는 2005년, 지난해 900만대를 돌파하더니 1년 만에 1000만대를 넘어섰다. 이는 현대차가 불과 7년 전에 달성한 기록이어서 무섭게 질주하는 기아차를 보여주고 있다. 1000만대를 일컬어 세우면 지구를 한바

퀴 돌고도 한반도를 2.5회 더 왕복할 수 있는 거리이며, 면적으로는 여의도(89만평)의 27배, 상암월드컵경기장(6만5000평)의 370배 규모다. 위로 쌓으면 에베레스트산보다 1790배 높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10개국에 차를 팔던 기아차는 현재 세계 156개국으로 신차를 실어나르고 있다. 1975년 첫 수출 이래 지금까지 지역별

■ 기아차 누적 수출 실적 (단위:만대)



수출 실적은 북미 427만4355대, 유럽 245만1948대, 아시아·태평양 87만6856대 순이다.

◇광주공장 생산 스포티지·쏘울이 견인 =수출 1000만대 돌파는 광주공장이 견인했다.

한 때 광주공장에서 생산됐던 프라이드가 130만8206대로 가장 많았고, 스포티지

(신·구형·스포티지R 포함)가 106만9201대로 뒤를 이었다. 기아차 디자인혁명의 모델인 쏘울이 26만1449대, 카렌스가 40만8376대 북미와 유럽 등으로 팔려나갔다.

차급별 비율로 보면 소형차가 21.9%로 가장 높고 준중형이 19.4%, SUV는 18.7%가 수출됐다. 하지만 기아차는 최근 R시리즈(스포티지R·쏘렌토R), K시리즈(K5·K7) 등 수출 전략형 모델의 판매 호조로 소형차 중심의 수출구도에서 벗어나 중대형 승용차와 RV 판매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기아차는 지난해 차사 이래 최초로 현지 생산·판매분을 포함한 연간 생산판매 200만대를 돌파했으며, 글로벌 점유율 3%를 달성하는 등 끊임없는 판매신기록을 경신해가고 있다.

/박영욱기자 jwpark@kwangju.co.kr

다섯 중 한명 '스마트폰' 쓴다

가입자 1000만명 돌파... 사용자 60%가 20~30대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지난 23일을 기준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으며 스마트폰 대중화 시대가 열렸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2009년 말 80만명에 불과했으나 그 해 11월 아이폰이 도입되면서 급속세를 타기 시작, 지난 23일 1002만명을 기록했다. 올 연말에는 스마트폰 가입자가 2000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2007년부터 스마트폰 도입이 활성화됐으나 국내는 스마트폰 보급이 비교적 늦었다. 그러나 2008년 12월 무선인터넷 표준 플랫폼인 '위피' 탑재 의무 폐지 등 규제 완화에 이어 2009년 11월 KT의 아

이폰의 국내 출시를 계기로 스마트폰이 본격 확산되기 시작했다. 스마트폰 가입자 수 증가 추이를 보면 2009년 12월 80만명에서 지난해 6월 247만명으로 급증했고, 지난해 말 722만명, 올 2월 926만명으로 급속세가 계속되면서 마침내 지난 23일 1002만명에 이르렀다.

스마트폰은 일반 PC와 같이 범용 운영체제(OS)와 웹브라우저가 탑재돼 사용자가 다양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직접 설치·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은 이런 특성 때문에 음성통화 기능에 머물렀던 기존 이동전화와 달리, 정보검색·교통·게임·금융·교육·모바일 오피스 등 '종합 문화서비

스 플랫폼'으로 진화했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가입자 중 20~30대 가입자 비율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 휴대전화의 20~30대 비중(30%)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또 스마트폰 가입자의 84%가 스마트폰용 정액 요금제에 가입했으며 5만5000원 이상의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가입 비율도 52%에 달한다.

지난해 1월 데이터 트래픽은 449테라바이트(TB)에서 올해 1월 5463TB로 11배 이상 증가했다. 와이파이가(WiFi) 사용량도 이동전화에서 발생하는 전체 트래픽의 3분의 1(2785TB)을 차지하고 있다. 작년 말 국내에서 국내에서 출시된 스마트폰은 모두 45종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스마트폰 대중화 시대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지난 23일을 기준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으며 스마트폰 대중화 시대가 열렸다. 24일 서울 광화문 KT빌딩 올레스퀘어에서 사람들이 다양한 스마트폰을 사용해 보고 있다. /연합뉴스

초경량 LED가로등 개발

광기술원, 기존보다 40% 더 가벼워

한국광기술원이 기존 제품보다 40%가량 가벼운 고효율 LED(발광 다이오드) 가로등을 개발해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24일 광기술원에 따르면 광기술원은 지난달 러시아에서 열린 한·러 LED 포럼에서 초경량 고효율의 LED 가로등을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 이 가로등은 240W급 고효율로 기존 10kg인 무게를 6kg으로 떨어뜨렸으며 필요에 따라 60W에서 240W까지 소비전력을 바꿀 수 있어 다음 기술원 측은 밝혔다. 특히 영하 60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고 대량생산도 가능해 가격 경

쟁력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술은 LED 조명업체인 ㈜세오가 러시아 기후조건에 맞는 가로등 개발을 위해 광기술원 반도체 조명 연구센터 연구진이 1년여간 연구 끝에 개발했다.

광기술원은 세오로부터 의뢰를 받아 소비전력 50% 감소, 빛 도달 거리 2배로 향상 등이 가능한 조명장치를 개발, 기술 이전하기도 했다.

광기술원 김선호 원장은 "세오는 러시아 현지의 호평을 받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두드리게 될 것"이라며 "산·연 협력을 통한 현실적인 기업 지원 사례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건설경기 지지개 커나

포스코건설·GS건설 등 채용 잇따라

주요 건설사들이 건설경기 침체로 닫아뒀던 채용시장의 문을 다시 열고 있다.

24일 건설취업포털 건설위커에 따르면 포스코건설, GS건설, 동부건설, 경남기업, STX건설, 올트라건설 등이 신입 또는 경력사원 채용을 진행 중이다. 포스코건설은 기계, 전기, 토목, 건축, 화공, 안전, 사무직(경영지원) 등의 분야에서 다음달 6일까지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STX건설도 다음달 4일까지 토목, 건축, 플랜트사업 부문 등에서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한다.

한국지역난방기술은 오는 30일까지 기계, 환경, 기계제어 등의 부문에서 역시 신입사원을 뽑는다.

GS건설은 다음달 4일까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플랜트 사업본부 경력사원을 채용한다. /연합뉴스

2월 신설법인 4248개...작년비 9% 감소

중소기업청은 2월 한 달 동안 새로 생긴 법인이 모두 4248개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9% 감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설법인의 수는 지난해 9월 4095개를 기록한 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 1월에는 5661개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이번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연합뉴스

업종별로는 건설업의 감소가 두드러져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1.9%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제조업도 작년 같은 달보다 10.0% 감소했으며 서비스업도 6.7% 줄었다.

특히 자본금 1억초과 법인의 경우 15.3% 줄어 1억이하 소자본 신설법인(7.5% ↓)보다 감소폭이 컸다. /연합뉴스

Table with economic indicators: 코스피지수 2,036.78 (+24.60), 코스닥지수 513.70 (+3.53), 금리 (국고채 3년) 3.66%, 원·달러 환율 1,121.00원 (3.50). Includes a note: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생수·국수 '불티'

日 지진에 국내 주문 폭증

일본 대지진과 원전 사고 이후 국내 식품업체들에 생수와 라면 등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

24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석수와워리스는 이달 들어 일본에 작년 동기보다 177%나 증가한 18만상자의 생수를 수출했다. /연합뉴스

석수와워리스는 일본 대지진과 원전 사고 이후 도쿄를 중심으로 생수 수요가 급증해 공장을 '몰 가동' 하고 있으며 일본 다른 지역에서도 주문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제주삼다수 역시 이달 들어 일본으로부터 받은 주문량이 150t에 달했다.

기존 일본 수출량은 미미했으나 일 본에서 생수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문이 쏟아졌다. 또 농심은 이달 들어 일본으로부터 750만 달러어치의 라면을 주문받았다. /연합뉴스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신진공인중개사' (New Real Estate Agents). Lists various properties for sale and rent, including land, houses, and commercial buildings,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H.P.011-601-5354 and 010-2441-1610.

Advertisement for '이엔지 방수' (ENG Waterproofing). Features images of green waterproofing buckets and text: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and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Contact: 062-367-7755.